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4.08.21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집행위, 유럽 반도체 제조 회사 ESMC의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50억 유로의 독일 국가 보조(State Aid) 승인(8.20)
 - 독일이 집행위에 통보한 드레스덴 ESMC 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는 자동차 및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 충족을 목표
 - 해당 시설은 오픈 파운드리로 운영될 예정으로, TSMC 외의 다른 세 개의 주주(bosch, infineon, NXP)를 포함하여 유럽 중소기업(SME), 스타트업, 대학에 생산 용량에 대한 특별 액세스 등 전담 지원을 제공
 - 이번 승인은 칩법 커뮤니케이션 원칙*에 근거한 집행위의 네 번째 결정으로, 집행위는 ‘22년 10월 STMicroelectronics를 지원하기 위한 이탈리아 조치, ‘23년 4월 STMicroelectronics와 GlobalFoundries를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조치, ‘24년 5월 STMicroelectronics의 통합 SiC 제조 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이탈리아 조치를 승인한 바 있음
 - * 칩법 커뮤니케이션(’22.02)에서 집행위는 반도체 부문의 새로운 첨단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EU의 공급 보안과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며, 광범위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
 - 이와 더불어 집행위는 유럽 칩법 제15조에 따라 ‘통합생산시설(IPF)’ 및 ‘개방형 EU 파운드리(OEF)’ 사업 신청에 대한 [가이드라인](#)을 발표
 - ※ 이 가이드라인은 ‘최초(first-of-a-kind) 시설’, ‘통합생산시설(IPF)’ 및 ‘개방형 EU 파운드리(OEF)’에 대한 정의와 해당 시설이 얻는 혜택, 부여되는 의무,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설명
- 집행위, 최고과학고문그룹(GSCA) 과학자 추천 요청(8.20)
 - 이 그룹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주제에 대해 집행위원단에 독립적인 과학적 조언을 제공
 - GCSA의 7명의 위원은 뛰어난 수준의 과학적 전문성과 ‘정책을 위한 과학(Science for Policy)’에 대한 비전에 따라 선정
 - 이에 따라 유럽의 공공 연구 및 과학 기관은 9월 30일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추천하도록 초대됨
 - ※ GCSA는 과학적 자문 메커니즘의 일부로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이 임명하고, 회원 자격은 최대 3년 동안 유지되며, 갱신할 수 있음
- (기타) ▲유럽 반도체 비전 벨기에 마이크로칩 제조업체 파산으로 타격(8.16) ▲철도 공동사업단(Rails JU), 복합소재 활용 기술 시연 결과 발표(8.13) ▲유럽보건이니셔티브 (IHI), 200번째 프로젝트 발표(8.9) ▲2022년도 유럽 국가별 교육 수준 통계(8.17)